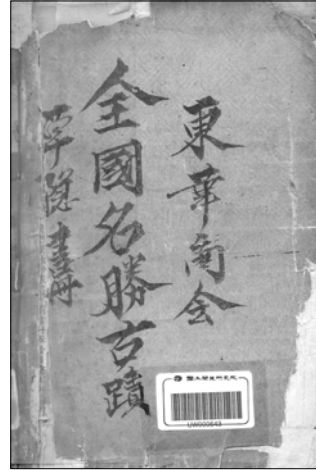


49 全鮮名勝古蹟(全) 전선명승고적(전)

1929년 / 김유동(金迪東) / 516면 / 14.10-08 전 1929

김 유동(金迪東)이 1929년에 저술한 516면의 방대한 저작으로, 책머리는 어윤직(魚允迪)과 신석우(申錫雨)의 휘호로



장식되어 있다. 서문은 윤희구(尹喜求), 홍명희(洪命憲) 두 사람이 썼다. 아마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자와는 친구관계인 것 같다.

김창섭(金昌燮) 화백이 표지 의장을 했다는데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책머리에 명승고적의 사진 88매가 수록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내용은 13도의 군별로 명승지와 고적지를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역사적 유물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문화면의 지지(地誌)라 할 수 있다. 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 탈이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능가할 만한 출판물을 보지 못했다.

군별로 분량이 가장 많은 군은 경상북도의 경주군이다. 신라의 고도라 유적이 많은 탓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16면에 달하고 있다. 대충 분류해 보면 산이 34개, 절(寺)이 20개를 넘는다. 또한 서원(書院)도 10개소를 넘는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서인(西人)의 거두인 송시열(宋時烈)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고향인 경북 선산을 보면 의우총(義牛塚)과 의구총(義狗塚)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리사

(桃李寺)는 아도화사(阿度和事) 스님이 신라에서 가장 먼저 창건한 절이란 것도 기록되어 있다. 선산의 금오서원(金烏書院)에는 고려 삼은(三隱)의 한 분인 길재(吉再) 선생과 김종직 및 장형광, 박영 등이 모셔져 있다.

경주 다음으로 기록이 많은 곳은 평양이나 분량으로는 10면에 불과하다. 을밀대니 모란봉이니 부벽루 등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기자사당(箕子祠堂)이나 기자묘(箕子墓) 또는 단군사당이나 동명왕사당을 비롯해 많은 명승고적이 있으나 지금 그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또 무열사(武烈祠)에는 중국의 李如松(이여송)을 모시고 있기도 하다. 백제의 고도인 부여에는 아직도 평제대(平濟臺)가 있다.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탑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을 섬기는 하나의 증좌(證左)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